겨울맞이 김장에 더한 자비의 온기

부산불교교육대학 · 화엄승가회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일환으로
취약계층 김장 1250포기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자비의 김장 166박스를 남구노인복지관과 남구보훈회관에 전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대규모로 김장을 나누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는 11월 24일 남구노인복지관과 남구보훈회관에서 자비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삼보문화회가 주최하고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부산광역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는 매년 역점 사업으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과 '부산광역시의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김장 나눔은 위 사업 일환이다.

이번 김장 나눔에선 배추 총 1250포기(10kg 166박스, 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6세대에 각 1박스, 남구보훈단체 10곳에 각 5박스를 전달한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등 회원 스님들을 비롯해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박시우 남구노인복지관장이 참여했다. 또 이강현 남구보훈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장, 유영원 광복회장, 강동철 상이군경회장, 정기영 진몰군경유족회장, 정향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백성태 무공수훈자회장, 문길용 고엽제전우회장, 구수회 6·25참전유공자회장 등 관계 단체장들과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 화엄승가회 소속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자살예방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오랜 전통 속에 불교 교육과 포교를 위해 노력해온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사회적 역할을 고심하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불철주야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김장은 모두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선물이다. 동참해준 모든 분들의 공덕이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온기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회의원은 "오랜 역사 동안 불교는 호국불교이며 어려운 시기 든든한 민중의 기둥으로 자리해왔다"며 "오늘 부산불교대학과 화엄승가회에서 마련한 김장김치가 어르신들의 식탁에 따뜻함을 전하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취약계층 난방 지원

복지관에 난방비 1000만원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1월 24일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에서 '2023년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연합회장 원허 스님, 사무총장 석산 스님을 비롯해 이희배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으며, 기부한 난방비 1000만원은 저소득 노인 가구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 후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영도구 내 지원세대 가정을 방문해 난방유를 직접 넣고 어르신을 만나 건강을 기원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돕고자 한다"며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면 우리의 일이 얼마나 뜻깊은지 알 수 있다. 따뜻하게 추위를 이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발원으로 2017년 시작됐다. 시작 당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지원했으며 현재는 유류비 지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미단 운암장학회, 고교생 장학금 전달

해동고에 총 1000만원 지원



재단법인 청미단 운암장학회(이사장 운암)가 11월 24일 부산 해동고등학교 법당에서 학생과 우수동아리에 장학금을 지원했다.〈사진〉 운암장학회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청량사를 중심으로 인재불사를 위해 창립돼 부산 종립학교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학금은 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우수 동아리 3곳에 각 100만원, 우수 지도교사 2명에게 각 100만원 총 1000만원이 전달됐다.

운암장학회 이사 효산 스님은 "장학금은 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뜻 깊은 인재불사 원력"이라며 "장학금을 받아 명예와 부를 뛰어넘는 불자의 마음을 키우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원규 해동고 교감은 "학생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선교종, 혜만 대종사 종정 추대

11월 28일 코모도 호텔서
제7대 종정 추대법회 봉행
"불법은 세간에 있다" 법어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제7대 종정 추대법회가 11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이하 선교종) 제7대 종정으로 경보 혜만 대종사가 추대됐다.

선교종(총무원장 대풍)은 11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대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됐다. 선교종 중앙포교원장인 도청 스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행사 △행장소개 △축사 △격려사 △헌사 △등단봉청 △불자봉정 △법장 봉정 △법어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발원문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대풍 도영 스님은 "경보 혜만 대종사께서는 평소 참선과 교학을 놓지 않고 철저한 수행에 매진해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스님으로 운수납자들의 지남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생교화에 큰 발원을 세우시고 덕풍을 일으키시는 대종사님을 종정으로 추대하여 모시고 전 종도들은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결집해 화합하고자 한다"고 봉행사를 전했다.

제7대 종정에 취임한 경보 혜만 대종사는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세간에서 깨달음을 떠나지 말라.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면 마치 오리에서 뿔을 구함과 같도다"며 "밝고 티 없는 청정한 법신은 연꽃이 티끌에 물들지 않음과 같도다.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고 오온은 텅 비었으니 문득 옛 거울을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는구나"라고 추대 수락 법어를 내렸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과 정용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축사에 이어 사상구 경승실장 성문 스님과 성주사 조실 흥교 대종사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흥교 대종사는 "선교종은 선종과 교종 양종을 한국 최초로 병합하여 수행가풍과 승풍을 진작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종단"이라며 "종정으로 추대되신 경보 혜만 큰스님을 중심으로 결집해 종정예하의 원력에 따라 화합과 전법 교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했다.

이어 승정원 부원장 도신 스님, 중앙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중앙사정원장 도경 스님, 문화예술원장 월수 스님의 헌사와 중앙교육원장 덕운 스님이 결의문 낭독, 교무부장 덕광 스님의 발원문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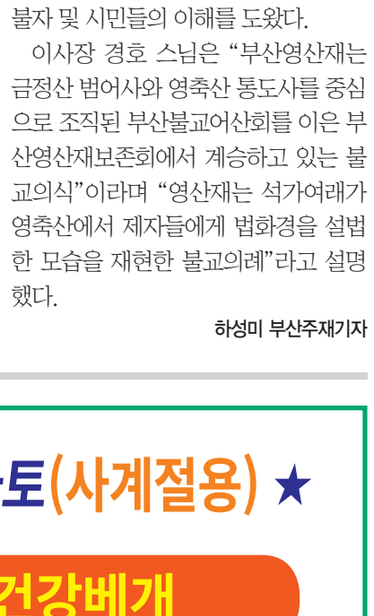
경보 혜만 대종사는 1965년 3월 경북 문경 대승사로 출가해 1966년 3월 인봉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1971년 5월까지 5년간 선 · 교 · 율 삼장을 수학 후 1972년 충북 중원군소재 세계사, 1977년 양산 금륜사, 1980년 영도 다보사 주지에 취임했다. 1996년 동호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983년 구덕산 수도사 주지에 취임한 뒤 수도사에 선원을 열고 35안거를 성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흥교 대종사,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대한불교승가공동회장 도현 스님,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성각 스님, 대한불교옴조계종 종정 정오 스님,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동국대학교 前 총동문회장 고담 스님, 사상구 경승실장 성문 스님, 해운대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법안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영산재보존회, 2023년 공개행사 개최

11월 24일, 의례 의미도 설명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이사장 경호)가 11월 24일 부산민속예술관 2층 송유당에서 '2023년 부산영산재 공개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영산재는 유래 구성 및 진행절차가 독창적이고 소박하며 작법무(作法舞) 춤의 구성이 특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나비춤은 느리고 장엄하면서도 지역적 특징을 갖고 범패는 가락이 다양하며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행사는 먼저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소개, 봉행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삼신이운과 대령, 관욕, 영산작법 등 영산재를 시연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영산재를 시연하는 동안 스님들은 각 순서가 담긴 의미를 설명해 행사에 동참한 불자 및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사장 경호 스님은 "부산영산재는 금정산 범어사와 영축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부산불교어산회를 이은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계승하고 있는 불교의식"이라며 "영산재는 석가여래가 영축산에서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한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례"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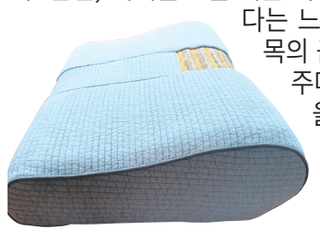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